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56호

2025.08.14.(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한미·조선	韓 주요 조선사, 美 프로젝트 지원	중국·텅스텐	텅스텐 가격 급등으로 국내 광산 재개
미국·반도체	엔비디아, 中 수출 대가로 美에 수출통행세 납부	일본·갈륨	日, 갈륨 조달처 확대를 위해 호주서 생산
미국·반도체	美, 일부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예정	유럽·방산	유럽 암모니아 위기로 방산업계 불안
스위스·제약	스위스 제약업계, 美 현지 생산 계획	중국·리튬	CATL, 광산 일시중단으로 리튬 가격 급등

###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조선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美-中, 조선업 주도권 놓고 글로벌 경쟁 본격화
중국·텅스텐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텅스텐 가격 급등… 中 수출통제와 광석 공급부족이 원인
미국·반도체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엔비디아, 中 수출을 대가로 美에 매출의 15% 납부

### 산업·품목 심층분석

글로벌·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 (후편)

###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아프리카 22개국 원전 도입 추진… 러·중이 시장 선점



## II. 월간 공급망



수출통제·제재, 공급망 등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트럼프 신정부 관세 배경과 공급망 영향



## IV. 공급망 소식통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바이어·국내기업 모집 ~9.12.)

에코바디스가 직접 알려주는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 세미나(~8.22.)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한미, 조선 韓 주요 조선사, 美 프로젝트 지원	8.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최근 합의한 MASG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TF를 출범시킴</li> <li>✓ 이는 지난 7월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광범위한 투자 패키지의 일환임</li> </ul>	<a href="#">연합뉴스</a>
2	중국, 텅스텐 텅스텐 가격 급등으로 국내 광산 재개	8.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텅스텐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문 닫았던 영월 상동광산과 울진 쌍전광산이 상업 생산 재개를 추진 중</li> <li>✓ 가격 급등의 원인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시장 유통 물량 감소 및 환경 규제 강화임</li> </ul>	<a href="#">조선일보</a>
3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中 수출 대가로 美에 수출통행세 납부	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비디아·AMD가 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中 매출의 15%를 美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함</li> <li>✓ 동 조치로 美 정부가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은 약 20억 달러(약 32조 원)로 예상됨</li> </ul>	<a href="#">파이낸셜 타임즈</a>
4	일본, 갈륨 日, 갈륨 조달처 확대를 위해 호주서 생산	8.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갈륨의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 호주에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임</li> <li>✓ 목표는 '28년까지 55톤 이상 생산이며, 이는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물량과 같은 수준임</li> </ul>	<a href="#">로이터</a>
5	미국, 반도체 美, 일부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예정	8.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의 반도체 칩에 약 100% 관세 부과 예정</li> <li>✓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겠다고 밝힘</li> </ul>	<a href="#">로이터</a>
6	유럽, 방산 유럽 암모니아 위기로 방산업계 불안	8.6.(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내 암모니아 생산비용 증가로 화학·비료공장 다수가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량을 줄임</li> <li>✓ 암모니아는 방산 관련 제품의 필수 원료이므로 유럽의 무기 제조업체의 취약성이 증가함</li> </ul>	<a href="#">Euractiv</a>
7	스위스, 제약 스위스 제약업계, 美 현지 생산 계획	8.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노바티스는 관세 회피를 위해 美 판매량의 100%를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임</li> <li>✓ 미국은 의약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1년 뒤에는 150%, 이후에 250%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함</li> </ul>	<a href="#">NZZ</a>
8	중국, 리튬 CATL, 광산 일시중단으로 리튬 가격 급등	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위 배터리업체인 中 CATL은 중국 장시성의 대형 리튬 광산 생산을 일시 중단함</li> <li>✓ 광산 일시중단 이후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탄산리튬 선물가격이 가격제한폭인 8%까지 상승함</li> </ul>	<a href="#">로이터</a>

## ◆ 주간 이슈 포커스

## ① 미·중 공급망 이슈 돌보기

## 미·중, 조선 美-中, 조선업 주도권 놓고 글로벌 경쟁 본격화



美, 정책 지원·우방국 협력을 통해 조선업 부활에 박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4월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동 행정명령은 범부처 차원의 '해양 행동계획' 개발 및 해양 안보 신탁 기금 설립을 통해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중국 경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Maritime Action Pl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PNSA) 주도로 정부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해양 전략으로, 세부 실행안은 '25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

▣ 트럼프 행정부의 MASGA\* 프로젝트는 위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실행 프레임워크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첨단선박 발주 등을 추진하도록 함

\*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 '25.7월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 합의된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중 1,500억 달러(약 209조 원)가 MASGA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임

◆ MASGA의 일환으로 8.6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소속 4.1만 톤 급 화물 보급함 'USNS 앤런셰퍼드' 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 발표 이후 첫 수주임

출처: 백악관(4.9.), 로이터(7.31.), 조선일보(8.6.)

## 조선업 질적 1위에 도전하는 중국… 조선 영토 확장에 불 불나



▣ 중국은 한미 MASGA 협력 및 조선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종 포트폴리오와 대규모 생산을 기반으로 세계 조선 시장에서 양적 1위를 달성함

◆ '25년 상반기 중국 조선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나, 한국의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및 초대형·특수선 부문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질적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책	내용
CSSC 조선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주요 국영 조선사들을 합병하여 CSSC(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설립함. 민간 조선소들도 CSSC의 하청으로 편입되어, 조선소·기자재사·해양플랜트·방산업체 등 조선산업의 전 벌류체인이 하나의 그룹처럼 통합 관리됨</li> <li>▶ 또한 설계부터 건조, 수리까지 수직계열화 체제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집중과 선종별 조선소 특화 전략을 시행함</li> </ul>
조선산업 친환경발전 개요(2024~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까지 친환경 조선업의 초기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30년까지는 기술·공급망을 세계 정상급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해당 정책은 불황기에 중국 정부가 국영 선사에 선(先) 발주를 넣거나, 조선사들의 가동률과 생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이 우대조건으로 대출·보험을 지원함</li> </ul>

출처: KOTRA 다롄무역관('24.1.24.)

##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 중국, 텅스텐 텅스텐 가격 급등… 中 수출통제와 광석 공급부족이 원인

▣ 8.5일 텅스텐정광 가격은 톤당 194,500위안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24.5월 최고점(톤당 156,500위안) 대비 24.3% 증가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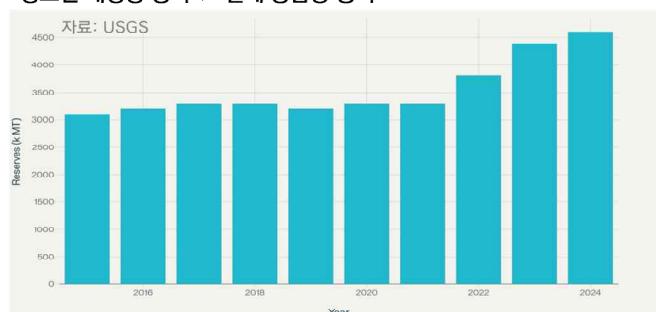


▶ 텅스텐정광 가격은 '25.5월까지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함. 가격 부담으로 인해 업계의 신규 오퍼가 감소하며 재고 활용이 우세해져 수요 둔화로 가격 하락 후 보합세가 유지됨. '25.2월, 중국의 수출통제 시행으로 텅스텐 가격이 상승하여 현시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25.7월 텅스텐 가격 급등 현상은 ▲텅스텐 광석 부족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세계 주요국의 전략적 비축 증가 ▲중국 채굴 쿼터 감소 및 환경 규제 심화에서 기인

## 고품위 텅스텐 광석 10% 미만

## 텅스텐 매장량 증가 ≠ 실제 공급량 증가



◀ 좌측 그래프와 같이 전 세계 텅스텐 매장량은 '24년도 기준 4.6백만 톤으로, '15년도(3.3백만 톤) 부터 증가 추세이나,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고품위 광석"은 감소하고 있음. USGS는 향후 채굴 가능한 고품위 광석이 전 세계 매장량의 1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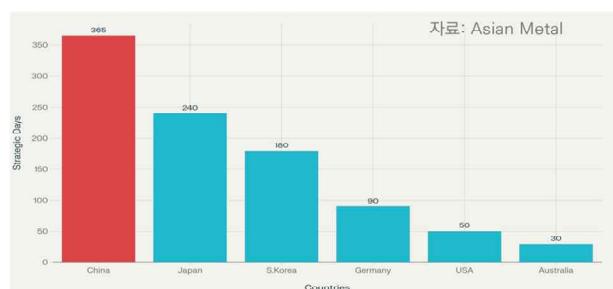
저품위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장비, 인력, 에너지 등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여 생산원가가 높음

## 중국 텅스텐 365일치 비축

중국이 '25.2월 텅스텐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수출통제를 시행하면서 세계 주요국이 전략적 비축량을 확대하며 시장 유통 물량이 감소함.

중국은 최대 365일치 텅스텐을 비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240일, 한국은 180일, 독일은 90일, 미국은 50일치 텅스텐을 비축하고 있음.

▼ 아래 그래프는 주요국별 텅스텐 비축량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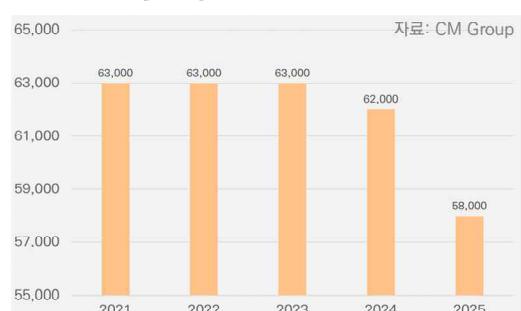


## '25년 중국 텅스텐 채굴 쿼터 58,000톤

세계 텅스텐 원광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이 '24년부터 채굴 쿼터를 감소시키고, 환경 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함.

'25년 중국의 텅스텐 채굴쿼터는 58,000톤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 2년 전 대비 8% 감소함

▼ 아래 그래프는 중국의 텅스텐 채굴쿼터



## ③ AI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中 수출을 대가로 美에 매출의 15% 납부

## AI가 선정한 이슈

2025.8.6일부터 12일까지의 공급망 관련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 8.11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 이번 미 정부의 조치가 과거의 수출통제와 다른 점은?**

**A.**

미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엔비디아·AMD에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게 한 것은 과거의 관세나 제한 조치와 달리 ‘**수출통행세**’라는 전례 없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단순한 무역 봉쇄나 관세 부과가 아닌, 허가 조건으로 수익 일부를 정부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Q. 이번 조치로 미 정부가 연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A.**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 반도체 매출을 기준으로, 미 정부는 한 해에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A.**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엔비디아의 H20 등 AI 칩에 핵심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주요 파트너입니다. 엔비디아가 매출의 15%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비용 절감 압박·납품 단가 인하 등으로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이슈 더 알아보기

## ◆ 경제안보와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견제 정책

미 정부의 수출통행세 모델은 엔비디아, AMD와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판매 수익의 15%를 미 정부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새로운 정책임. 이는 기존의 관세 및 수출통제 등의 조치와 차별화된 모델임

▶ (의미) 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발전과 AI 반도체 역량 증대를 견제하고, 미국 내 기술패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동시에,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겉보기에는 완화된 듯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임

▶ (배경) 중국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칩 수입 제한으로 자국 반도체 기술 혁신의 병목에 처해있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High Bandwidth Memory,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인 고성능 메모리

이에 미국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 허용 조치를 통해 대중(對中) 협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통행세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됨. 또한 적정 수준의 기술·부품 의존도를 유지하게 하여,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함

출처: 파이낸셜타임즈(8.10.), (8.11.)

## ↳ 반도체 기술 관련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완화 조치

시기(행정부)	내용 및 배경
2019~2020 (트럼프)	화웨이, SMIC 등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을 미 상무부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하여 미국산 반도체·장비의 수출을 제한함. 외국기업도 미국산 장비 사용 시 화웨이·SMIC에 판매 금지
2022~2024 (바이든)	AI 반도체 칩, HBM 등 메모리, 첨단 생산장비 수출의 전면 통제. 주요 중국 기업 140개 추가 제재함
2024~2025 (바이든)	일부 미국 기업에게 발급한 수출 라이선스에 대한 추가 연장·발급을 중단함
2025.8.8. (트럼프)	미국 내 생산·투자기업은 관세를 면제하나, 중국산 칩에는 100% 관세율을 적용함. 삼성·SK하이닉스 등 미국 진출 한국기업은 우대.
2025년 8.9. (트럼프)	중국 정부가 HBM 등 첨단 반도체 부품의 대미 수출통제 완화를 공식 요구함. 트럼프 행정부도 향후 양국 간 협상 카드로서 제한적 완화 조치 논의.
2025.8.11. (트럼프)	엔비디아(H20 칩)·AMD(MI308 칩) 등 미국 기업이 중국에 AI 반도체 칩 수출 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수출통행세’) 조건으로 수출 허가. 단, 일부 고성능(Blackwell 등) 칩은 여전히 수출 금지
2025.8.12. (트럼프)	미-중 간 상호 관세 인상을 90일간 추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합의

출처: 로이터(8.8.), (3.22.), The Economic Times('23.6.30.)

## ◆ 산업·품목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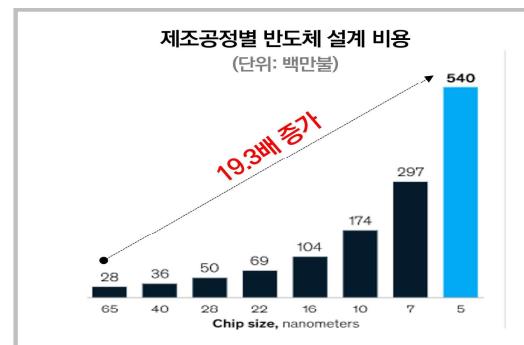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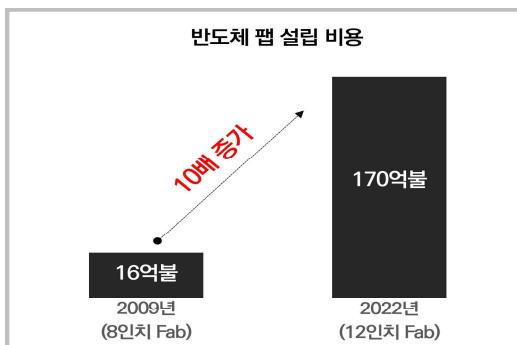
### 글로벌,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 (후편)

작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종완 실장

#### 반도체산업의 특성 및 한계

- 미세공정의 한계에 다다르며, 선단 공정개발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도체 패브 건설 비용, 첨단 반도체 칩 설계 비용이 기존에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1개 기업이 감당하기에 큰 투자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음
- 막대한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 보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쟁 돌입

〈반도체 설계, 패브 설립 비용 변화〉



- 반도체는 제품의 수명 주기(Life Cycle)가 짧고 기술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적기에 제품을 개발, 판매하여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정한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 가장 먼저, 최적의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임
- 선행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승자 독식 구조(Top 5 기업이 다른 기업 모두의 수익을 초과)
-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설비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필요
- 반도체 제품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고성능/저전력화됨에 따라 미세공정 등에 따른 신공정 도입과 관련 장비 수량 증가 등으로 설비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할 예정

#### 반도체산업 치열한 경쟁으로 돌입

- 반도체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 미국, 중국을 비롯해 세계는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반도체 기술 주권을 사수하는 데 집중

- ▣ 반도체산업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는 산업을 넘어 각국의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
- ▷ 팬데믹, 자연재해로 인한 수요 급변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교란 발생, 분업화의 문제점이 국가안보 및 산업 생태계에 큰 위협으로 대두
- ▷ 반도체를 생산성의 기준인 민수산업이 아닌 수급이 기준인 안보 산업으로 인식
- ▣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재정비,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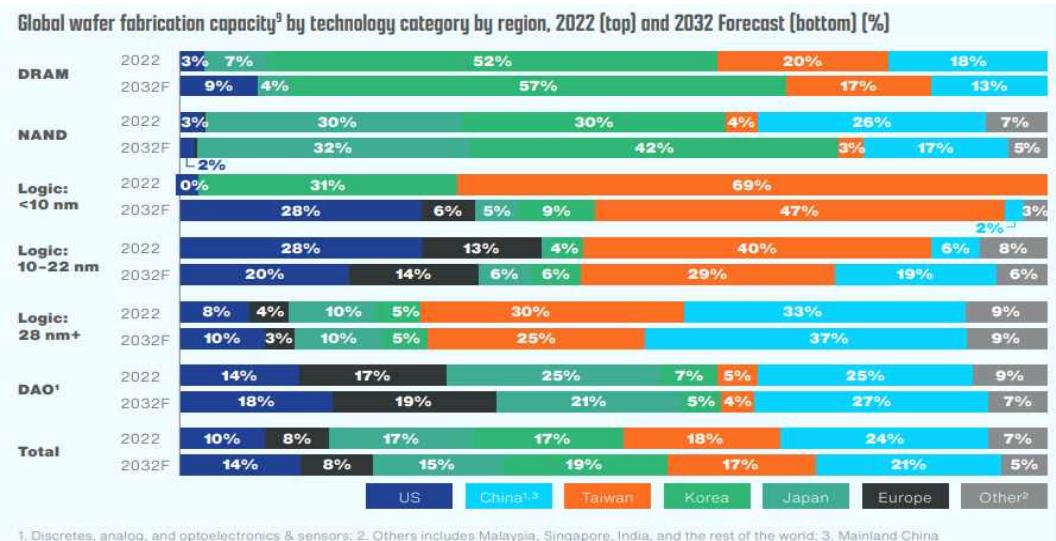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정책 현황>**

국가	주요정책	내용
	반도체 지원법 (CHIPS and Science Act)	▶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을 위해 재정지원 527억 불 지원 및 투자세액공제 25% 제공
	유럽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 '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위해 총 430억 유로 규모의 공공 및 민간자금 동원
	반도체전략	▶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반도체전략' 발표, 생산 기반 기금 조성, 일본 내 제조시설 투자기업(TSMC, 마이크론 등) 지원
	중국 제조 2025 및 반도체 펀드	▶ '25년까지 70%의 반도체 자급률 달성을 위해 1조 위안 투자 ▶ 중국 정부, 금융기관, 대형 국유기업 공동 출자의 국가 반도체 펀드 설립
	산업혁신조례	▶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및 첨단공정용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 한국 반도체산업의 제조경쟁력 약화 가능성

- ▣ 주요국의 지속적인 투자로 반도체 제조역량 추격은 전략적 레버리지 상실과 소부장 구매협상력 약화로 경쟁력 저하 가능성 보유
  - ▷ 선단 공정 기술 및 생산시설에 대한 지속 투자로 각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을 자국화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의 전략적 레버리지 상실
  - ▷ 기존 비용 효율 중심의 글로벌 분업체계가 경제안보 중심의 분절화·진영화로 재편되면서 점차 칩 메이커의 소부장 구매협상력 약화
- ▣ 미국 반도체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 제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점유율은 높아지는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축소
  - ▷ 현재 31%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Logic 분야의 첨단공정 제조점유율은 2032년 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반면, 미국 Logic 분야의 첨단공정 생산점유율은 현재 8%에서 '32년 1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 지금까지 한국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대만과 함께 세계시장을 주도해 왔음. 만약 한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이 축소되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반도체 제조점유율의 변화〉



\*출처 : SIA

▣ 하지만, 한국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첨단 반도체 팝 건설을 적극 추진 중으로, 향후 반도체 제조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AI 시대와 반도체산업 공급망

- ▣ 반도체산업 AI시대 돌입으로 주요 반도체 국가·기업들의 산업정책 및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 또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등의 통상환경 변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또 다른 변수로 적용될 전망임
- ▣ 이에 우리나라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R&D, 투자지원, 인력양성, 통상·국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며 대응해야 함
  - ◆ 국가 AI 전략 수립 시, 한국 반도체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산 AI 반도체 개발 및 관련 팝리스 기업, 소부장 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 ◆ 첨단 반도체 제조 리더십 강화를 위해 반도체 팝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AI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야 함

##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 에너지 아프리카 22개국 원전 도입 추진… 러·중이 시장 선점

- ▣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원자력발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아프리카의 원전 발전 용량이 2050년까지 최대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 과거 아프리카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해왔으나,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며, 전력 저장이 어려워 원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아프리카 원전 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선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최소 20개국과 원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중국은 자체 개발 원자로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출처: IAEA(8.8.)

##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8월 1주)

비철금속 | 수출량 및 재고량 확대로 동 가격 ↓, 인니 원광 생산 증가 및 中 수출확대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7월	전년비(%)	7.5주	8.1주	전주비(%)
동	9,147	9,482	3.7	9,706	9,613	△1.0%
니켈	16,812	15,322	△8.9	14,923	14,888	△0.2%
아연	2,779	2,742	△1.3	2,793	2,777	△0.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주요국 동 수출량 확대 및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로 정련동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니켈) 과잉 공급에 따른 주요 거래소 재고량 증가, 인도네시아 니켈 원광 생산 증가 및 중국 정련니켈 수출확대로 니켈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강 | 中 조강생산 견조 및 재고량 감소에 따른 철광석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7월	전년비(%)	7.5주	8.1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7.72	△21.0	115.32	115.91	0.5%
원료탄	240.90	183.69	△23.7	179.48	183.20	2.1%
철광석	109.89	100.28	△8.7	100.42	100.93	0.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OPEC+ 증산 전망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석탄 수요 유지 전망 및 계절성 수요 확대로 유연탄 가격 상승

▣ (철광석) 中 철강업계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견조한 조강 생산 및 주요 항구 철광석 재고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8월 1주)

**희소금속** | 업체들의 생산량 유지로 탄산리튬 가격 ↓, 재고 감소로 수산화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7월	전년비(%)	7.5주	8.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88	△9.4	1,053	1,053	-
탄산리튬	12,526	9,576	△23.5	9,982	9,872	△1.1%
수산화리튬	11,398	9,098	△20.2	8,876	9,054	2.0%
코발트 (U\$/lb)	16.25	17.75	9.2	19.5	19.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5,766	△4.5	265,500	263,500	△0.8%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2,495	12.2	76,250	76,660	0.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中 정부의 저가 경쟁 억제 정책으로 시장 심리가 안정화되었으나, 향후 주요 생산업체들의 추가적인 감산계획이 없어 탄산리튬 가격 전주 대비 소폭 하락**

**▣ (수산화리튬) 재고량 감소 및 원료가격 변동성에 따른 공급업체들의 가격 조정 등으로 수산화리튬 가격 전주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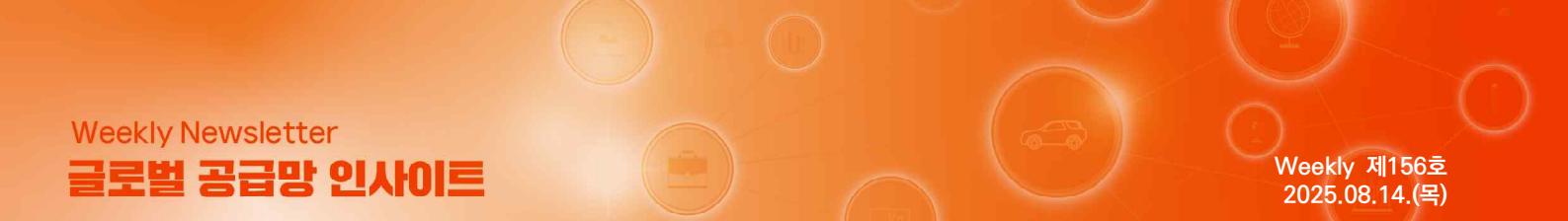
**에너지** | 미국발 관세 리스크 부각 및 미-러 긴장 관계 완화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7.5주	8.1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1.66	△7.92	73.51	70.28	△3.22
브렌트유	79.86	70.51	△9.35	71.60	67.43	△4.17
WTI	75.76	67.39	△8.37	68.50	64.92	△3.5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한 유가 하락**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의약품·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유가 하락을 견인함
- ◆ 또한, 8.6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혀 양국 간 긴장 완화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 8.3일, OPEC+가 9월 증산 물량의 확대를 결정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됨



## 월간 공급망

◆ 수출통제·제재, 공급망 등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작성 달로이트 안전 회계법인 SRT RR&F F&RI 심윤수 이사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의 관세 장벽을 넘어, 수출통제, 경제 제재, 공급망 무기화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기업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였다. 본고 1부에서는 냉전 시대 도시바 기계의 COCOM 위반 사례, UN 대북 제재, 미국의 역외적용 제재,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까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복합적인지 제시하였다. 시시각각 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해 그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 글로벌 통상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25.1.20~)가 들어서고 약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글로벌 통상 시장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미국發 관세, 공급망, 수출통제 뉴스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혼란과 우려가 가득하다. 결국 중국과의 수출통제·공급망 분쟁은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6.9.~10.)에 따라 양쪽이 한발 물러선 채로 합의<sup>1)</sup>하고, 우리나라는 8.1일부로 15%의 상호관세가 확정되며 혼란은 수습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급변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글로벌 통상환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MAGA<sup>2)</sup> 기조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경제블록화 확산, 개별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강화와 같은 기본적인 방향 위에서 점차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기업 경영진, 경영전략실, 준법·수출입 관리팀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수출통제, 제재 등 비관세장벽과 함께 공급망과 관련된 과거의 주요 사례를 돌아보며, 트렌드를 이해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융합된 형태의 글로벌 경영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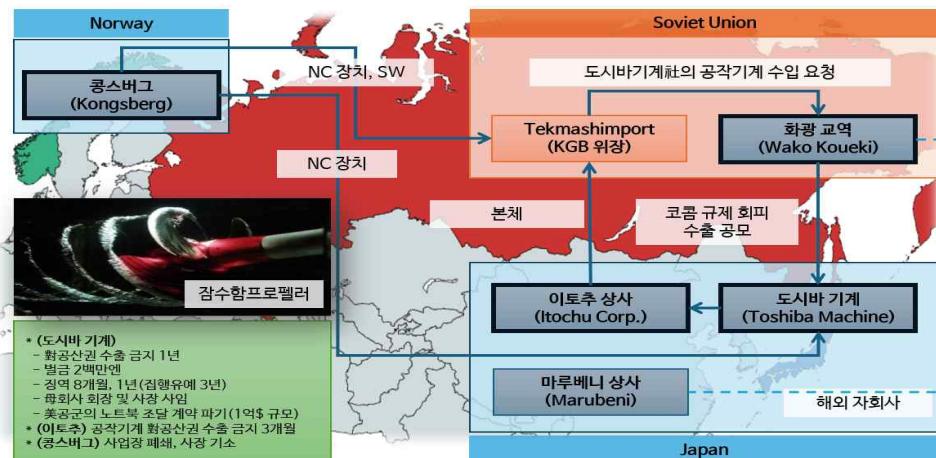
### 도시바 기계 COCOM 위반 사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국제사회는 냉전시대에 돌입하였으며, 미국은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 (COCOM<sup>3)</sup>, 1949~1994)를 통해 전략물자·기술 등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의 對공산권 수출을 제한하였다. 냉전이 한창이던 80년대, 우수한 음향탐지 기술을 이용하여 소련 잠수함을 추적해오던 미국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소련의 잠수함 탐지에 실패하게 되며,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시바 기계(Toshiba Machine)의 무허가 수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다.

- 
- 1) 미-중 무역 합의안 서명... 미는 반도체, 좋은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한겨레 25.6.27. 이정연 기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205053.html>, 25.7.11. 검색)
  - 2)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약어로,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형태로 자주 활용한 바 있다.
  - 3)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소련의 스파이였던 美 해군 장교 존 워커 주니어(John Walker Jr.)는 소련의 잠수함이 추적당하는 원인이 잠수함 프로펠러의 소음에 기인한다는 기밀을 소련에 전달하였으며, 소련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손에 넣고자 하였다. 결국 일본 도시바 기계로부터 밀링 머신을, 노르웨이 콩스버그로부터 소프트웨어와 수치 제어 장비를 수입하여 이를 조합을 통해 잠수함 프로펠러의 소음을 줄이고 미국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 〈 도시바 COCOM 위반사건 개요 〉



※ 출처: "The Toshiba-Kongsbers Incident: Shortcomings of COCOM, and Recommendations for Increased Effectiveness of Export Controls to the East Bloc"(Wende A. Wrubel) 발췌 재구성

도시바 기계가 소련으로의 수출 승인을 위해 물품명과 목적지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미국에 끼친 경제적 피해가 부각되며 모회사 회장을 포함하여 도시바 기계 사장 등 경영진의 사임과 처벌, 벌금, 대미 조달 금지 조치까지 이뤄졌다. 정치외교 쪽으로도 큰 여파를 불러일으켜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도 있었다.<sup>5)</sup>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일본에서는 안전보장부역관리로 표현하나,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수출통제로 통칭하기로 한다.)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이자 일본에게 뼈아픈 사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 UN 대북제재

두 번째 사례로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들 수 있다. 제재의 경우 국제연합(UN)의 결정에 따른 국제제재와, 특정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독자 제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독자 제재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 아니라면 참고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것이 통상적이나, 준수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경우가 있어 이를 포함하여 함께 보고자 한다.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지속한 북한<sup>6)</sup>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번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sup>7)</sup>)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였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금지 촉구를 시작으로, 대량 살상무기 금수,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핵실험이 지속되자, 재원 조달을 막기 위해 석탄·석유·일반 기계류·사치품 등 수출입 물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 조치까지 포함되었다. (UN 안보리 결의 2397호, '17.12.)<sup>8)</sup>

4) Gregory, Joseph (1987) 'Controlling the Transfer of Militarily Significant Technology: COCOM After Toshiba',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1, is.4.

5) The Toshiba-Kongsberg Case (Kings College London 2014.9.22. <https://www.kcl.ac.uk/news/the-toshiba-kongsberg-case>, 25.7.15. 검색)

6) 1993년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언급했다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이후 2002년 핵시설 재가동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며, 2003년 최종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7) UN 현장에 따라 총회 결의는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성격을 지니게 되며(현장 10~14조), 안보리 결의, 특히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하는 결의(강제조치 포함 가능)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현장 25조, 39~42조)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8) 북한산 석탄의 경우, 결의 2270호('16.3.)에 의해 민생 목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도록 결정된 바 있으며, 이는 결의

그러던 와중 한국 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불법 수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하였으며,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로 옮긴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들여온 사실이 확인되었다.<sup>9)</sup> 종합 조사 결과 총 9회에 걸쳐 약 4만 톤의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밝혀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기소, 공범 8명을 불구속기소<sup>10)</sup>하였다.

### 〈 북한산 석탄 등 반입 내역 〉

구분	연번	1	2	3	4	5	6	7
북 한 ↓ 러 시 아	출발일자	'17.04.01	'17.04.12	'17.07.18	'17.08.12	'17.08.13	'17.07.25	'17.07.21
	출발지	송립항	원산항	청진항	대안항	원산항	대안항	대안항
	선박명	케이모닝 (K.MORNING)	자운7 (ZHUNKUN7)	쿤펑 (KUNPENG)	운봉2 (UNBONG2)	유유안 (YUYUAN)	율지봉6 (ULJIBONG6)	룽리2 (RUNGRIA2)
	환적지	나후드카항	나후드카항	블라디보스톡항	홈스크항	홈스크항	홈스크항	홈스크항
러 시 아 ↓ 한 국	입항일자	'17.04.25	'17.06.27	'17.08.07	'17.10.02	'17.10.13	'17.10.19	'17.10.27
	입항지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포항항	동해항	동해항
	선박명	진아오 (JIN AO)	리치비거 (RICH VIGOR)	싱광5 (XING GUANG5)	스카이エン젤 (SKY ANGEL)	리치글로리 (RICH GLORY)	사이닝리치 (SHINNING RICH)	진룡 (JIN LONG)
	품명	무연성형탄	무연탄	선철	무연성형탄	무연탄	무연탄	무연탄
수량(톤)	4,119	10,050	2,010	4,156	5,000	5,119	4,584	
	위반혐의	부정수입	부정수입	부정수입	밀수입	부정수입	부정수입	부정수입

※ 출처: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관세청 보도자료, '18.8.10.)

이들은 북한산 석탄의 무역거래가 UN 제재로 인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형성형탄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세미코크스로 허위 기재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 회피 행위를 기반으로 거래를 추진해 왔다는 측면에서 앞선 도시바 기계의 무허가수출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미국 독자 제재

한편,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제재 외에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제재 중 하나가 미국 독자 제재인데, **미국은 자국 법령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을 통한 2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미국 내에서 이뤄진 행위,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미국 법령을, 미국 밖에서 미국인이 아닌 타국인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 법령의 관할권 범위를 확장해 오고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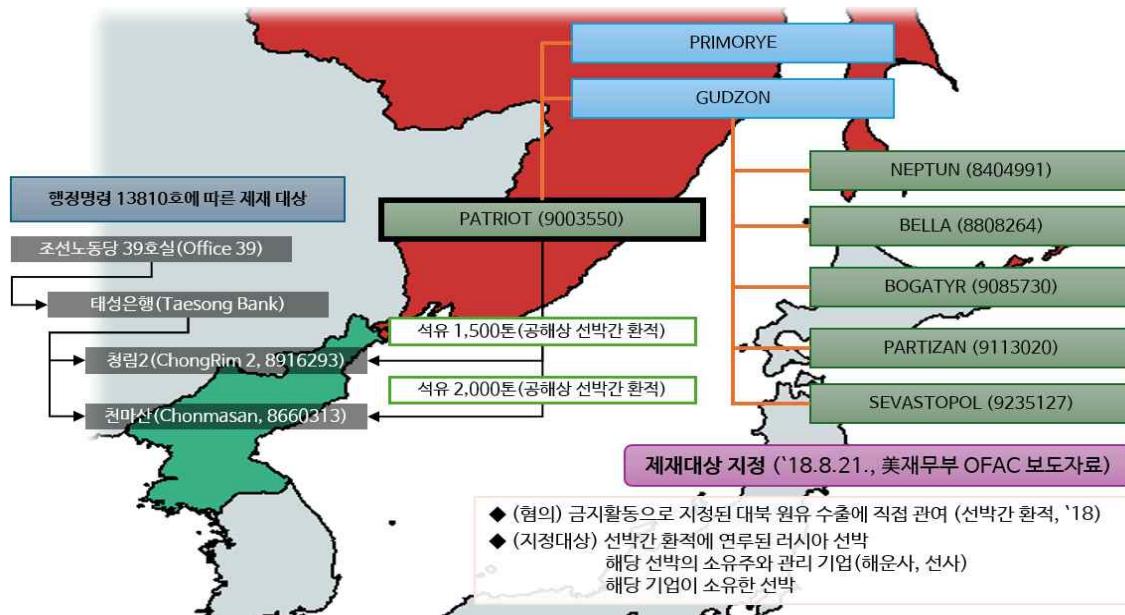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sup>11)</sup>)에 따른 수출관리규정(EAR<sup>12)</sup>)은 제3국에서 제3국으로 향하는 수출에 대해서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DOC<sup>13)</sup>)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Treasury<sup>14)</sup>)은 우려거래자로 지정한 SDN list<sup>15)</sup>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 행위에 연루된 자 역시 우려거래자로 지정하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적용하고 있다.

2321호('16.11.)에 의해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연간 4억 달러 또는 750만 톤의 상한 설정과 함께 회원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경우 월 단위로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토록 강화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의 2371호('17.8.)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은 전면 금지, 즉 모든 회원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하게 강화되었다.

- 9)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관세청 보도자료, 18.8.10.)
- 10) 대북제재: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 (BBC 뉴스 코리아 '18.12.11. <https://www.bbc.com/korean/news-46520837>, '18.12.11. 검색)
- 11) Export Control Reform Act, 기존의 수출관리법(EAA, Export Administration Act)을 대체하여 수출관리 업무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을 지정한다.
- 12)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미국 상무부 관할 규정으로 산업용 이중용도 품목의 (재)수출, 이전 등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De Minimis(최소편입비율), FDPR(해외직접생산품규정) 등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다수 규정의 모체가 되는 규정이다.
- 13) Bureau of Industry Security,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산업용 이중용도 품목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말한다.
- 14)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금융 거래 및 해외 자산에 대한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15)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등재된 우려거래자 목록을 말하며, 등재 시 통상 자산 동결, SWIFT 거래 금지, 여행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되는 우려거래자 명단을 말한다.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제재가 한창 강화되던 2018년 미국은, 러시아의 선박 및 해운사가 북한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SDN에 등재<sup>16)</sup>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제재에 기반한 압박성 시그널을 보낸 바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17)</sup>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에 대한 1차 제재인지, 1차 제재 대상자와의 연루에 따른 2차 제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3국에 존재한 우리 기업에도 준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사례 〉



요약: 미 재무부는 안보리결의 및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라 금지된 공해상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제공한 러시아 선박(패트리어트), 선박 소유주 및 관리기업 2개사, 사건과 무관하지만 이를 기업이 소유한 선박 5척을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

※ 출처: 미 재무부 보도자료(각주 16)를 참고하여 필자 재구성

금융제재 외적인 부분,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중의 충돌이 거센 지금, 산업용 이중용도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복잡하고 방대한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깊이 있는 이해와 준비만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공급망 제재 (일본 수출규제, 중국 회토류 수출통제)

마지막으로 공급망 위협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대비가 이루어졌지만 앞선 사례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7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그간 포괄허가를 활용해서 비교적 손쉽게 수출입이 가능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해,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포괄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6) Treasury Targets Russian Shipping Companies for Violations of North Korea relate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미 재무부 보도자료, '18.8.2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463>, '25.7.18. 검색)

17) [기자문집] 미 재무부의 은행 제재 방식... 세컨더리 제재 구분해야 (VOA 뉴스 '18.11.2.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39130.html>, '25.7.18. 검색)

수출통제를 활용해 공급망 교란을 야기하였던 당해 조치는 역작용으로 일본불매 운동과 함께 국내 소부장 산업 공급망을 국산화·다변화하여 반도체 산업계의 공급망을 단단하게 정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sup>18)</sup>했으며, '24년 양국의 협의를 통해 결국 원상복구는 되었으나, 단기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뒤이어 '21년에는 차량용 배기ガ스 저감장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의 수출을 중국이 제한하며 요소수 대란이 펼쳐졌다. 국내 요소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오던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며 '23년 기준 88.1%이던 중국산 요소 비중을 '24년에는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27.1%로 낮추었다.<sup>19)</sup>

희토류 역시 중국이 수출통제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측되었던, 중국이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로 쥐고 있는 핵심 광물류이다. 해외직접제품규정(FDPR)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희토류 7종을 대상 품목에 포함하였다.<sup>20)21)</sup>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충격의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당장 일본의 스즈키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소형차종인 스위프트의 생산을 일시 중단<sup>22)</sup>하기도 했던 만큼,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희토류 상세 〉

원소명	주요 용도	주요 사용 산업
사마륨 (Samarium)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핵반응 제어봉, 적외선 흡수 유리 등	전자, 방위산업, 원자력
가돌리늄 (Gadolinium)	MRI 조영제, 원자로 제어봉, 자기 냉각 시스템, 형광체	의료, 에너지, 전자
테르븀 (Terbium)	녹색 형광체, 고성능 자석, 연료전지의 안정화제, 디스플레이	전자(디스플레이), 전기차, 에너지
디스프로슘 (Dysprosium)	고온용 영구자석, 원자로 제어봉, 레이저 소재, NdFeB 자석 안정화 소재	전자, 전기차, 에너지(풍력 등)
루테튬 (Lutetium)	석유 정제 촉매, PET 스캐너, 고급 합금	에너지, 의료, 정밀계측
스칸듐 (Scandium)	항공기 구조용 합금, 연료전지 전해질	항공우주, 에너지
이트륨 (Yttrium)	세라믹, 형광체, 금속 합금, 레이저	전자, 의료 등

※ 출처: “중국,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하려 희토류 7종 수출통제 발표” (KOTRA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25.4.10.)

중국으로부터 이들 희토류를 원재료로 수입하여 가공해왔던 우리 기업들은, 다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지 못하였다며, 이제 수입을 위해서는 중국의 공급업체가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서류 및 서약서 등을 제시해야 하며, 수출허가가 발급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리드 타임(Lead Time)에 선반영하여 납기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sup>23)</sup>을 고려하면,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18) 일본 수출규제 정면 대응, 위기 극복 성공공식을 찾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http://webarchives.pa.go.kr/19th/report.president.go.kr/story/view/9>, '25.7.21. 검색)

19) 요소 도입선 다변화 굳어진다... 중국산 비중 20%대로 확 줄어 (연합뉴스 '25.1.31. 차대운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502910003>, '25.7.22. 검색)

20) 중국 상무부 : 4월 4일부터 7종 중희토류 관련 제품 수출통제 실시 (KOTRA 해외시장뉴스 25.4.7. 베이징무역관, [https://dream.kotra.or.kr/kotra\\_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420&bbsSn=506&pNttSn=227881&CONTENTS\\_NO=1](https://dream.kotra.or.kr/kotra_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420&bbsSn=506&pNttSn=227881&CONTENTS_NO=1), '25.7.23. 검색)

21)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품목 밀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5.4.7. <https://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389/view#>, '25.7.23. 검색)

22) 스즈키 스위프트 생산 중지,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영향 (NHK '25.6.5.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05/k10014826641000.html>, '25.7.23. 검색)

23)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로 한국 수입 76% 급락... 세계 공급망 대혼란 (글로벌 이코노믹 '25.6.8. 박정한 기자,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81343271060c5557f8da8\\_1](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6/202506081343271060c5557f8da8_1), '25.7.23. 검색)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19)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희토류 등의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적시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sup>24)</sup><sup>25)</sup>

## 선제적,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 전체 산업계를 고려한 종합적 의사결정이 요구되기에 당장 대응이 시급한 기업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 중국이 AI 등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반도체 중심의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되고 있으며, 러-우 사태를 계기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금융을 포괄하는 제재 조치 역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추이, UN 및 주요국가의 우려거래자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검증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 외에도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막론하고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편중도, 안정성을 검증하여 유사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 보호 등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안보가 강조되고 있는 지금, 수출경쟁력이 절실한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수출통제, 제재 등 비관세장벽, 공급망 관리 등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넘어설 수 있는, 전사 차원의 리스크관리 경영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1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직면한 무역안보 환경을 직시하고, 기업의 당사자 여러분들이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경영관리체계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끝.

24) 소부장 공급망센터 개소...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한다 (연합뉴스 '23.6.19. 이슬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036300003>, '25.7.23. 검색)

25) 2025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5.3.25. 공급망안정화위원회,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voUjUJz3KKx-w2vNnEREJFUk.node60?atchFileId=ATCH\\_000000000028599&fileSn=14](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voUjUJz3KKx-w2vNnEREJFUk.node60?atchFileId=ATCH_000000000028599&fileSn=14), '25.7.23. 검색)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 트럼프 신정부 관세 배경과 공급망 영향

작성 산업연구원 김현석 박사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을 기점으로 구조적 전환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단순한 무역전략 변경을 넘어, 세계 공급망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분명한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5.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를 선언하고,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최대 50%(중국 제외)의 고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적자와 펜타닐 문제 등을 이유로 3.4일에는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4.10일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서 총 145%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또한, 구리,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적 품목도 주요 타겟이 되었으며, 약 4개월간의 관세 협상 이후 70여 개국에 차등적 상호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신정부가 발표한 관세 관련 주요 내용과 주요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美 신정부 관세 부과 일지

날짜	내용
'25.3.12.	-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25.3.26.	- 모든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25% 관세 부과
'25.4.2.	- 전 국가 대상 상호관세 발표, '25.4.9부터 발효
'25.4.9.	-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10% 최소관세는 유지, 대중관세 125% 즉시 인상
'25.5.12.	- 미국, 중국산 수입품 관세 기준 145%에서 30%로 인하 - 중국, 미국산 제품 관세 125%에서 10%로 인하 - 관세 인하 기간: 2025년 5월 14일부터 시작
'25.5.30.	-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 50% 인상 발표(25.6.4 발효) - 캐나다·멕시코도 예외 없이 적용, 영국은 25% 유지
'25.6.17.	- 미국-영국 경제번영협정(EPD) 집행 행정명령 서명 - 영국산 자동차(연 10만 대까지), 자동차 부품(영국산) 관세 10% 적용 -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은 쿼터(할당량) 내에서 관세 면제 또는 인하 적용 협상 중, 쿼터 초과 또는 요건 미충족 시 기존 관세 적용 - 항공우주산업 등 추가 분야 협상 계속
'25.7.2.	-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 부과(기준 46%) - 타국에서 베트남을 경유(Trans-shipment)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40% 관세 적용 - 베트남, 미국산 제품에 대해 0% 관세 약속 및 시장 완전 개방 - 구체적 발효 시점 및 세부 품목 기준 등은 미확정, 트랜스쉬핑 판정 기준도 불투명 -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 및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도 요청
'25.7.7.	- 일본·한국 등 14개국에 8월 1일부터 25% 이상 관세 부과 통지 -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공식 서한 발송,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Liberation Day” 관세) 90일 유예 종료를 8월 1일로 재연장 - 관세 회피 목적의 제3국 경유(트랜스쉬핑) 제품에 대해 원산지 기준으로 추가 관세 부과 경고 - 트럼프 대통령,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시 추가 인상 경고 - 트럼프 대통령, BRICS 및 ‘반미국적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10% 관세 부과 경고

날짜	내용
'25.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 전 품목에 35% 상호관세 부과 예고</li> <li>- 기존 25%에서 10%p 인상된 조치로,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li> <li>- 캐나다가 펜타닐 유입 차단 등 미국과 협력할 경우 관세 조정 협상 여지 언급</li> <li>- 서한을 받는 국가들 외 국가들에 대해서 기본 상호관세 인상 예고(15~20% 수준)</li> </ul>
'25.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30% 관세 부과 발표(8월 1일 발효 예정)</li> <li>- EU,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지속 의사 표명, 보복 조치 가능성 시사</li> <li>- 남아공 30%, 라오스·미얀마 4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세르비아 35%, 캄보디아·태국 3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0% 등 국가별 상이한 관세율 적용</li> <li>-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8월 1일 발효)</li> <li>-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등 불공정 행위 조사 명령</li> </ul>
'25.7.15.	- 인도네시아 관세 19% 협상, 시장 완전 개방, 미국 농산물·항공기 대규모 구매 약속
'25.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 적용(기준 계획 대비 인하 조치). 일본,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약속. 자동차, 쌀 등 농산물, 공산품 시장 추가 개방 포함</li> <li>- 필리핀산 수입품에 19% 관세 적용. 미국산 농축산물 등 시장 완전 개방 약속</li> </ul>
'25.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산 수입품에 15% 균일 관세 적용(기준 30%에서 인하), 미국산 수출품은 무관세 적용(의약품에는 예외)</li> <li>- EU, 미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및 6000억 달러 추가 투자 약속</li> <li>- 미-중 관세 휴전(트루스) 추가 3개월 연장 예정(8월 중 미-중 협상 포함)</li> <li>- 중국, 홍콩, 마카오산 수입품은 8월 12일부터 34%로 환원 예정</li> <li>- 양자 관세율을 관련 추가 안내문 및 일괄 적용 예외 사례(의약품, 자동차 등 개별 품목)는 추가 협상·공지 예정임. 트랜스쉬핑 주의(관세 회피 목적으로 제3국 경유 시 고관세 적용). 상대국의 보복관세 발생 시 美 측 상호관세 추가 인상 경고</li> </ul>
'25.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종료, 관세 휴전 90일 추가 연장 합의 발표</li> <li>- 관세 휴전 종료 예정일: 8월 12일</li> </ul>
'25.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25% → 35% 인상(USMCA 기준 미충족 시 적용)</li> <li>- 약 70개국 대상 개별 관세율 개정 공포,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li> <li>- 트랜스쉬핑 적발 시 40% 관세 및 벌금 부과 예정</li> </ul>
'2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멕시코산 일반품 25%, EU 15%, 브라질 10%→50% 등 개별 관세율 부여(브라질은 8월 6일 인상 예정)</li> <li>- 미포함 국가 기본 10% 관세 일괄 적용</li> <li>- 800달러 이하 소액 직구(de minimis) 면제 8월 29일부터 전면 중단, 이후 고정 관세 부과</li> </ul>
'2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산 수입품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추가 관세 부과, 총 50% 적용 예정(8월 27일 발효 예정)</li> <li>- 8월 7일부터 21개국 15% 이상, 최대 41%까지 상향 (스위스 39%, 브라질 50%, 캐나다 35% 등)</li> <li>- EU는 15% 균일 관세 적용하되 일부 품목은 0%</li> </ul>
'25.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개국 이상 대상 신규 국가별 관세율 적용 시작 (10~50%)</li> <li>- 캐나다 35%, 브라질 50%, 인도 25%, EU 평균 15%, 일본 15%, 태국 19% 등</li> <li>- 트랜스쉬핑 적발 시 40% 관세 적용</li> <li>- 8월 7일 이전 출항, 10월 5일 이전 도착분까지 구관세 적용</li> <li>- 캐나다·멕시코산은 USMCA 충족 시 면제, 미준수 시 일반 관세 부과</li> <li>- 각국 보복관세 가능성 재경고</li> </ul>

〈표 2〉 주요국의 상호관세율

(단위: %)

2025. 8. 7. 기준 주요국 상호관세율			
국가	관세율	국가	관세율
한국	15(25)	멕시코**	30(25)
중국*	30(34)	캐나다**	35(25)
일본	15(24)	대만	20(32)
EU	15(20)	베트남	20(46)

자료: 백악관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주: \* 중국은 기준 추가 관세 20%+34%(2025.4.2.)+91%(2025.4.10.)의 관세 부과 이후 미중합의(2025.5.12.)에 따라 30%로 인하

\*\*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품목(에너지 등)을 제외한 비USMCA 품목 및 비원산지 제품에 관세 적용

\*\*\*\* 4.2.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괄호 안에 표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 아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민족주의를 앞세워 통상정책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 제조업 부흥과 국내 고용 창출을 목표로, 리쇼어링과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sup>26)</sup> 타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구조적 불공정의 결과로 인식하여 상호관세율 산정 과정에서 미국은 개별 품목의 세부 경쟁구조나 비관세장벽의 실질적 영향보다는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근거해 관세율을 결정하고 있다<sup>27)</sup>. 이는 美 정부가 무역수지의 결과를 단순히 글로벌 분업구조나 가격 경쟁력의 차이로 보기보다, 상대국의 '비상호적 무역조치'와 비관세장벽(높은 관세율, 부가가치세, 기술규제, 보조금 등)에 의한 불공정 경쟁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세정책에 대하여 美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 더 나아가 안보 리스크 대응이라는 다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제비상 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관세를 단순한 통상정책만이 아니라, 제조업 리쇼어링 유도와 전략산업 내재화를 위한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고용 창출을 실현하는 동시에, 외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인과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리쇼어링 및 FDI 정책의 효과, 주요국의 대응, 그리고 글로벌 경제·산업계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의 행보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와 공급망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최근 한국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2024년 기준 상위 5대 수출국에 대한 비중은 56.8%, 상위 5대 수출품목에 대한 비중은 36.7%에 달하며 이는 주요 교역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sup>28)</sup>. 한국 경제의 무역 기반이 소수의 국가와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는 중국(19.5%), 미국(18.7%), 베트남(8.5%)이 한국의 3대 수출국으로, 이들 세 나라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6.7%에 이른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수출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아도 반도체, 자동차 등이 대표 품목으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을 합친 두 산업의 총 비중은 2024년 기준 29.8%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국 비중을 살펴보면 반도체 단일 품목은 상위 5대 시장 집중도가 85%를 넘어서는 압도적 의존도를 보이며, 자동차 산업 역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상위 10대 품목의 시장 집중도는 상위 5대 국가 기준으로 최소 59%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26) Reshoring Initiative(2023)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제조업 부흥 정책은 리쇼어링 및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한 미국 내 신규 고용은 2023년 기준 연간 36만 5,7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직접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이 전체 고용 창출의 14%(2만 360명)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27)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율 변화에 따라 상대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그 감소 폭이 미국의 해당국 수출액과 같아지는 수준의 관세율을 상호관세로 정의하였고, 이를 무역수지 적자 및 수입액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https://ustr.gov/issue-areas/reciprocal-tariff-calculations>)

28) 주요국 중국, 미국, 일본의 상위 5대국 및 5대 품목 비중은 각각 중국(38.9%, 20.8%), 미국(48.1%, 24.9%), 일본(57.2%, 32%)으로 나타남 (양주영 외, 2024)

〈표 3〉 한국의 수출편중도

연도별 주요품목 수출비중					주요국 수출비중 변화			(단위: %)
연도	품목	산업명	비중	5대 품목	연도	국가	비중	5대 국가
2022	8311	반도체	18.2%	34.8%	2022	중국	22.8%	56.3%
	7411	자동차	5.2%			미국	16.1%	
	2140	석유화학	4.1%			베트남	8.9%	
	1332	석유제품	3.9%			일본	4.5%	
	7420	자동차부품	3.4%			홍콩	4.0%	
2023	8311	반도체	14.9%	32.4%	2023	중국	19.7%	55.1%
	7411	자동차	7.0%			미국	18.3%	
	7420	자동차부품	3.6%			베트남	8.5%	
	2140	석유화학	3.6%			일본	4.6%	
	1332	석유제품	3.2%			홍콩	4.0%	
2024	8311	반도체	19.9%	36.7%	2024	중국	19.5%	56.8%
	7411	자동차	6.6%			미국	18.7%	
	2140	석유화학	3.5%			베트남	8.5%	
	7461	선박류	3.4%			홍콩	5.1%	
	7420	자동차부품	3.3%			대만	5.0%	

자료: 관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주요국 비교 수출품목은 MTI 4단위 기준

〈표 4〉 상위 10대 품목 수출편중도

품목	산업명	수출비중	국가	비중	5대 국가 비중
8311	반도체	17.8%	중국	36.4%	85.0%
			홍콩	17.7%	
			베트남	12.5%	
7411	자동차	6.2%	미국	50.5%	70.1%
			캐나다	6.9%	
			호주	6.5%	
2140	석유화학	3.7%	중국	31.1%	59.0%
			베트남	9.3%	
			미국	7.4%	
7420	자동차부품	3.4%	미국	35.4%	60.5%
			멕시코	8.5%	
			중국	6.0%	
1332	석유제품	3.3%	호주	29.5%	63.9%
			베트남	11.9%	
			필리핀	8.9%	
7461	선박류	3.0%	라이베리아	22.0%	68.6%
			마셜 제도	19.3%	
			싱가포르	13.7%	
8361	평판디스플레이	2.9%	베트남	61.6%	95.2%
			중국	26.7%	
			멕시코	4.2%	
2289	기타	2.5%	중국	33.3%	76.4%
			헝가리	15.3%	
			폴란드	11.6%	
1331	석유제품	1.7%	싱가포르	21.2%	73.1%
			호주	14.0%	
			일본	13.9%	
7414	자동차	1.6%	미국	35.2%	69.1%
			영국	10.7%	
			독일	10.3%	

자료: 관세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품목별 수출비중은 MTI 4단위 기준이며 각 비중은 2022년~2024년 평균 수출액으로 추정

이 같은 구조는 특정 산업에 대한 발전과 집중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글로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 곧바로 취약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의 통상 규제 강화, 현지 생산과 조달을 강조하는 '로컬라이제이션'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과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곧바로 수출 리스크로 연결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및 기술 분야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한국이 양국 모두에 높은 수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 수출 공급망이 중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는 한국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그 집중도는 다른 산업들 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여러 산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의 시장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 전반에 리스크가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역외 가공과 재수출까지 포함하면, 특정국 집중도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은 수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품목별·국가별 시장 다변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 품목의 신규시장 개척, 기술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험 분산형 공급망 재구성에 집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중대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 EU, 베트남,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은 미 신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미 무역에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 모두가 품목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서 수익성 악화와 수출 감소 위험에 직면하였다. 더 나아가 주요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미국 외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이후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공세가 미·중 무역마찰과 맞물리면서 한국 기업들은 경쟁 심화에 직면해 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사례는 한국 무역 규범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추가 제재 위험까지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인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생산기지 이동, 국내 제조업 생태계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목과 국가를 아우르는 다변화 전략이 절실히이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무역 블록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세안, 인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품목별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GVC) 참여도 진단과 함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충격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활용을 극대화해 생산 거점 다변화 및 현지화 전략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미국 내 직접투자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도 긴요하다. 대미 투자의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생산 거점 이동, 경쟁 심화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 판도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는 한국에 경제적 위험인 동시에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교섭력을 높여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품목과 국가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업별 GVC 참여와 공급망 연계도 면밀히 진단하고, 취약 산업을 위한 충격 완화 정책을 마련하며, 신성장 산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차세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 참고 문헌

- Reshoring Initiative. (2023). Reshoring Initiative 2023 Annual Report. Reshoring Initiative.  
양주영 외. (2024).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과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 공급망 소식통

- 2025 수출 봄업코리아 수출상담회 (바이어·국내기업 모집 ~9.12.)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장소 & 모집기간

KINTEX 제1전시장  
2025.9.12. 까지

### 프로그램 & 지원내용

1:1 수출상담회, 부대행사(관세 대응 119,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  
바이어 상담 매칭 및 통역 지원, 참가비 무료

### 참가방법

[웹사이트\(boomup.kotra.biz\)](http://boomup.kotra.biz) 회원가입 및 상담 신청  
[buyKOREA\(www.buykorea.org\)](http://www.buykorea.org) 회원가입 및 상품 등록

### 문의처

봄업 Week 전반 사항 : [gvc\\_monitoring@kotra.or.kr](mailto:gvc_monitoring@kotra.or.kr)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0 / 7767 / 7769  
기타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에코바디스가 직접 알려주는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 세미나(~8.22.)

작성 KOTRA ESG경영실

#제2회

# ecovadis 에코바디스가 직접 알려주는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 세미나

**#개요**

일 시 '25. 9. 3.(수), 14:00 ~ 17:00      장 소 KOTRA 지하1층 국제회의장

**#신청안내**

신청기한 '25. 8. 22.(금)      신청방법 설문지 작성  
<https://moaform.com/q/3IIISJq>

\*한정된 좌석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1개사 당 최대 3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인원 초과 시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1부	13:30~14:00 ('30) 접수	
	14:00~14:15 ('15) 개회사 및 축사	KOTRA, 에코바디스, 한국생산성본부
	14:15~14:50 ('35) 에코바디스 평가 개요 및 한국기업 현황	에코바디스 Richard Bourne 아태지역 수석부사장
	14:50~15:25 ('35) 에코바디스 평가 실무 및 활용사례	에코바디스 모인정 매니저 김윤애 애널리스트
15:25~15:40 ('15) 커피브레이크 및 네트워킹		
2부	15:40~15:50 ('10) 신정부 ESG 공급망 정책 동향	한국생산성본부 김상일 센터장
	15:50~16:00 ('10) KOTRA ESG 지원사업	KOTRA ESG경영실
	16:00~17:00 ('60) 에코바디스 평가 우수 중소·중견기업 사례	중소·중견기업 ESG 담당자
<b>★에코바디스 공식 교육파트너사 1:1 상담★</b>		
부대행사	15:00~17:00 ('120) 에코바디스 평가 자문, ESG/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제공	

## 글로벌 경제지표 ['25.8.12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5말	8/8	8/11	8/12	전일비	전년말비
₩/U\$	1,288.00	1,472.50	1,380.10	1,389.60	1,388.00	1,389.90	0.14%	△5.61%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76.60	1,388.20	1,387.60	1,389.50	0.14%	△5.72%
₩/CNY	181.37	202.38	192.00	193.33	193.33	193.33	0%	△4.47%
₩/¥100	912.25	932.67	959.00	942.93	940.70	937.47	△0.34%	0.51%
¥/U\$	141.19	157.88	143.91	147.37	147.55	148.26	0.48%	△6.09%
U\$/EUR€	1.1105	1.0429	1.1341	1.1645	1.1667	1.1612	△0.47%	11.34%
CNY/U\$	7.1092	7.2992	7.1903	7.1829	7.1819	7.1903	0.12%	△1.49%

\* '24년 평균 환율: (₩/U\$)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 1,417.19원, (₩/¥100) 957.21원

##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8/11	8/12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8.04	68.51	0.5	△1.8	△7.4	
					0.7%	△2.6%	△9.8%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2.90	104.00	1.1	14.7	4.0	
					1.1%	16.4%	4.0%	
비철 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643.50	9,661.50	18.0	1576.0	955.5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586.50		0.2%	19.5%	11.0%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045.00	14,985.00	18.5 0.7%	495.0 23.5%	88.5 3.5%
						△60.0 △0.4%	20.0 0.1%	△115.0 △0.8%

## ▣ 반도체

구 分	'23말	'24.11말	'24.12말	'25.6말	'25.7말	8/7	8/8	8/11	8월(~11)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1.74	1.84	1.75	5.50	5.46	5.42	5.42	5.41	5.42
	△14.8	10.8	0.5	190.5	174.3	172.6	172.6	172.7	173.6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YoY)	6.38	6.68	6.63	8.60	9.48	9.50	9.50	9.53	9.50
	△2.3	4.0	3.9	35.6	50.3	50.7	50.7	51.1	50.3

##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分	12/29('23년)	12/27('24년)	7/25	8/1	8/8	전주비(8/1)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592.59	1550.74	1489.68	△3.9%	△39.5%

##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分	12/22('23년)	12/24('24년)	1/2	8/7	8/8	8/11	8/12	전주비(8/11)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2008	2051	2038	2017	△1.0%	102.3%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gvc\_monitoring@kotra.or.kr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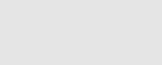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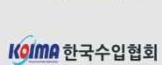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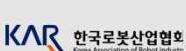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